

2013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연극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 16(화) 14:30~17:00
-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구태환, 김방옥, 이은경, 송 전

2012년도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 2차 공모에서 예심 통과된 총 25편의 작품을 심의하였다.

4명의 책임심의위원이 6개월의 공연기간 동안 현장 실연 심사하고, 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심사와 토론 후 개별적인 채점을 하였다. 희곡, 연출, 연기, 무대예술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70%의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 높은 점수를 주었고, 참신한 시도와 실험성도 심의에 적극 반영하였다. 아울러 관객의 호응도와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사업 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도 평가하였다. 지역과 신진단체의 경우 따로 구분하여 심사하였다.

또한 공연계획서의 충실성과 계획서대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제작비는 합리적·현실적으로 계상되고 지출되었는지 등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작품일 경우에는 지역, 연령, 양식의 다양성에 대한 안배를 하였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작품이 거의 없이 범작이거나 소극장의 소규모 작품들이어서 작품 선정과 지원금 배분의 결정이 소액다건이 된 점은 매우 아쉽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25개의 작품을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들은 12편의 작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금은 차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작기금으로 지원되므로 공연한 작품의 소요 예산이나 지원신청액을 고려하기 보다는, 선정된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채점 결과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된 작품의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세부 평가

1. 고래 <사라지다>

한국 현대 30대 여성이 겪는 여러 문제들을 에피소드 조합 형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성전환 여성이라는 매우 독특한 캐릭터를 중심에 두고 이 배역을 해낸 중진배우(박용수)의 노력은 평가할만했다. 배우의 고른 연기와 앙상블도 수준급이었다. 그러나 잘 꾸며진 무대가 너무 고정되어 변화가 없었던 점은 다소 아쉬웠다.

2. 극단 백수광부 <숲 속의 잠자는 옥희>

좋은 희곡, 세련된 연출력과 동화적 상상력 그리고 상징성을 내포한 무대 디자인, 에너지가 있는 연기자 등이 잘 조합된 좋은 작품이다. (동명의) 두 유명 여성을 정신적 방황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인터넷 폐해와 이를 조장하는 일그러진 언론 현실을 고발한다. 그러면서도 동화이미지로 직설적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의도를 극대화했다. 애니메이션 스크린과 나무숲의 분위기를 잘 활용함으로써 무대 안이라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벗어나게 해준 점도 신선했다.

3. 극단 까치동 <교동 스캔들>

전주 한옥마을의 고목을 소재로 해 지역색을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슈퍼아줌마를 천연덕스럽게 연기한 백진화의 연기가 발군이었고, 관객을 극 속 인물로 등장시키는 등 소통성을 강화해 관객석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서사의 진부함, 사건의 작위성, 완성도가 떨어지는 인형극 삽입 등은 아쉬웠다.

4. 극단 놀땅 <브루나니까 숲>

한국인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연극 소재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 거의 60년의 역사 공간을 몇 개의 에피소드 안에 담으려다 보니 약간의 비약과 모호한 흐름이 느껴졌다(역사적 원근법의 혼란). 특히 어린 청년이 화물차로 이동하며 부상 군인과 벌이는 싸움은 절정 치고는 빈약하고, 너무 길었다. 객석을 양분하고 그 사이에서 서사가 펼쳐지게 한 점은 독특한 방식으로 관객의 관극 욕망을 증대시켰다.

5. 극단 물결 <돈데보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있었고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소개한 부분도 좋았다. 입체적인 오브제의 활용이나 무대 조명의 활용으로 역동적인 공간을 창조했다. 다만 배우들의 앙상블이 조금 부족하였고 움직임 연출이 밋밋하고 반복적인 느낌을 주었다. 힘들게 공연을 제작하여 단 며칠의 공연으로 막을 내린 점은 정말 아쉽다.

6. 극단 미인 <당신의 손>

창작 모노드라마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작고 소박한 작품이었지만 배우

의 진정성 있는 연기와 중년 여성의 심리를 잘 읽어낸 설득력 있는 희곡 텍스트가 잘 어우러진 공연이었다. 영상으로 공연 중 배우의 대기하는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관객에게 새로운 연극적 체험이었다.

7. 극단 산 <당신의 눈>

장애여성 작가의 교통사고 과정을 인물들의 성격을 바꾸어서 반복함으로써 현실 팩트의 진실성이 작은 변화를 통해 거짓으로 바뀔 수 있음을 연극적 실험을 통해 보여준다. 아울러 장애인 팀의 공연연습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의 역발상을 보여준다. 이로써 상황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각 개인의 소통 제한성, 또는 불능 상태를 드러낸다. 연극 만들기 그 자체가 정신적, 정서적 실험임을 보여주었기에 작위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8. 극단 풍경 <죽음의 춤 2>

등장인물의 사후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의 리와인드(rewind) 기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자연주의와 표현주의 흐름이 함께 있는 이 작품에 해설자를 등장시켜 거리감을 조성하려는 연출의 독창적 의도가 흥미로웠다. 무대는 간결하지만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고, 배우들은 대체로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연술이 아닌 분위기로 주제를 구현하려다 보니 난해함이 두드러졌다.

9. 극발전소 301 <그날이 올 텐데>

지구의 종말을 그린 블랙코미디로 작가의 분방한 상상력이 돋보였다. 만화적 발상에 스릴러적인 요소, 공상과학적인 요소까지 더해져 엉뚱하면서도 흥미로운 작품이 되었다. 주저함 없는 연극에 대한 욕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나 장면연출에서 완급의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10.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정물화>

여고생의 감성이 세밀하게 묘사되고, 언어의 정밀성과 문학성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영상을 활용한 부분도 깔끔하게 잘 처리 되었으며, 겹겹의 창문들이 공중에 매달려 보이는 것으로 작은 무대공간이었지만 공간의 깊이를 잘 묘사하였다. 다만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버린 몇몇 역들은 마치 박제된 동물처럼 입체감을 갖지 못한 채 표현되어 버린 느낌이 든다.

11. 창작집단 LAS <성은이 망국하옵니다>

우리의 정치현실과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속 인물·상황을 절묘하게 끌어주한 정치 풍자극이다. 빠른 사건진행, 재치 있는 장면전환으로 소통성을 키워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신진극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는 과장·희화화되어 개그처럼 보였다. 높이가 낮은 극장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무대장치도 부담스러웠다.

12. 하땅세 <파리대왕>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는 작품이었다. 아직은 시도에 머물러 있는 장면구성이 눈에 보였지만 작품 전반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공연이었다. 극단이 타협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관객과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다만 부족한 디테일과 배우들의 고르지 못한 연기력은 많이 아쉬웠다.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2013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무용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 19(금) 15:00~17:00
-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박재희, 최성옥, 장선희, 김예림

2013년도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1차) 본심 대상 8개 작품을 심의하였고 이중 6개 작품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책임심의위원들은 공연기간 동안 실연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무용단체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와 홍보자료 및 동영상도 함께 검토하며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다. 단체의 안무력, 연출력, 무대미술(조명,의상등)등 예술적 완성도를 70%의 가장 비중을 두고 평가를 했으며, 사업 계획을 달성하는데 있어 노력도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관객의 호응도와 홍보등의 작품 외적인 부분도 평가하였으며,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 예심 심의때 제출한 사업내용과 현장 평가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는 심의에서 배제하였다.

이번 1차 본심의 경우 대부분의 공연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무용의 경우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무용을 공연하여 한국 전통 창작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현대무용은 작품의 완성도가 다른 장르에 비해 월등했으며 발레의 경우 새로운 시도가 참신했으나 창의성 부분에는 조금 미흡함이 보였다.

지원금은 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소요예산을 바탕으로 정했으며, 예산의 과다 책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채점 결과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된 작품의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세부 평가

1. (사)창무예술원 <봄날은 간다>

안무 연출과 단원들의 개성적인 테크닉 등 모든 것이 훌륭한 앙상블을 이룬 작품이었으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잃지 않고 상징적 표현성이 강조된 창무춤 스타일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작품이었다. 한국 창작품의 메소드를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양한 관객의 확보 등 앞으로 무용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2. 그린발레단 <빛의 정원>

미디어 아트와 발레의 독창적인 협업이 돋보이는 의미 있는 무대였으며 예술적 수월성에서 안무가의 역량이 높게 평가된 작품이었다. 광산 문화예술회관 상주 단체로서 향후 공연장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광산구 지역 무용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술단체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서 광주 지역 발레 활성화와 무용 관객층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백현순무용단 <천추여죄군>

송시열이란 인물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정서인 유교를 바탕으로 선비 정신을 표현한 작품으로, 스토리 라인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또한 한국적인 정서를 잃지 않고 작품의 주제를 살려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였으며, 춤사위·의상·소품 그리고 영상의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해주었다. 덧붙여 객석도 만석이었고 관객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점을 보아 단체의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4. 손경순예전무용단 <손경순예전무용단 2013 정기공연>

깨끗하고 절도 있는 수준 높은 전통춤을 보여 주었으며,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한 무대에 보여준 이번 공연은 한국춤계에 뚜렷한 안무 색을 인정받아 온 강미리의 안무뿐만 아니라 안무자가 직접 출연하여 공연전체에 강한 이미지를 주었고 전통춤 즐기던 마니아층에게도 창작 춤의 소개를 하는 의미 있는 공연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성의 있는 홍보물 자료들도 공연의 수준을 높여주었다.

5. 조성희 아하댄스씨어터 <광대-풍류를 타다>

소극장에 걸 맞는 무대 연출과 조명, 잘 훈련된 무용수들의 움직임 등이 작품을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대중음악을 사용한 점도 일반관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공연실황을 인터넷에 생중계하여 공연이 끝난 후에도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한 시도는 참신했다. 관객층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단체로써 차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평가되었다.

6. 최상철 댄스프로젝트 <오나(OHNA)>

소극장 공연이었지만 대작의 인상을 남긴 공연으로, 기다림이라는 추상적 내용을 흥미로운 무대구성과 명료한 연출력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며 표현력이 뛰어난 무용수들을 통해 작품이 질적 수준을 끌어올린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공연계획의 충실성은 물론 4일 공연기간 동안 관객유치, 홍보 등 기획력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준 점 또한 선정 요인이 되었다.

2013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음악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 18(목) 15:00 ~ 17:30
-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김창재, 한방원, 장일범

□ 총 평

이번 심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건의 예심통과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심의, 영상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전에 공지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70%), 공연계획 실행의 적정성(20%), 공연성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10%)에 따라 부분별로 평가하였다.

현장평가 대상을 실내악, 소극장형 오페라 등 세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사한 사업들간에 상호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공연의 수준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최종 7개 단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의는 창작곡을 포함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단원들의 연주력(오페라의 경우 연출력 포함)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또한 기존의 관행화된 공연양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실험적인 시도를 한 단체에게 완성도를 떠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2012년 동 사업의 2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당초 지원신청시 사업계획과 실제 수행 결과를 비교하여 해당 사업의 창작물의 예술성과 음악계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심의위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최종 합의된 결과이다.

□ 세부 평가

1.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 감자다

당초 지원신청서에서도 이 사업은 기존의 작품을 재해석하고, 어떻게 청중에게 전달할 것이냐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았고, 실제 공연에서 우리나라 소극장용 오페라의 공연방식에 대한 새로운 전범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양의 고전과 우리나라의 고전을 기반으로 한 오페라 작품을 병치하여 관객에게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으로 앞으로

선보일 후속 작업이 매우 기대된다.

2.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이 공연을 기획한 여성작곡가회는 단순한 협회가 아니라 수준높은 기획력을 갖고 창작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 국악기로 표현되는 현대음악은 국악의 어법과 현대음악의 그것을 조화시켜 여러 작곡가가 참여하는 발표회와 같이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위험소지를 차단하며 하나의 공통분모를 엮어 가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비용과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작곡가와 연주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하여 음악을 만들어 가는 준비과정이 좀 더 치밀해질 필요성이 있다.

3. (사)화음

이번 차수의 모든 심사대상 공연중에 만장일치로 기획적인 측면이나, 공연 당일의 연주력, 진행 등에 있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창작음악계에서 드물게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화음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단체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연에 영상이 부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 애미메이션과 창작곡이 완성도 있게 어우러지는 콘텐츠는 앞으로 창작음악과 관객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할만하다.

4. 대전클라리넷콰이어

중부권의 관악주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 클라리넷을 위한 작곡가들의 창작품 2곡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레퍼토리 발굴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는 지역 기반의 연주단체를 넘어 대표적인 전문연주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인력 확보 등 안정적인 단체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5. 카로스타악기앙상블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는 타악 연주회에 대한 거리감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좁혀가고 있으며, 창작곡을 포함한 프로그램 구성 또한 수준이 높다. 타악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단체중의 하나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전체 클래식 음악분야에서 파급력을 갖춘 단체로서 진일보 하기 위해 보다 도전적인 시도를 주문해 본다.

6. 코리안첼버오페라단

서구의 유명 오페라처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작품이 되기 위한 공공영역의 창작 오페라 지원이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되는 사례가 이번 공연이다. 국립오페라단의 지원을 통해 수 차례 가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에 발표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개작하여 선보인 이번 공연에서 평단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다만, 오케스트레이션을 비롯한 연주부분에 있어 드러난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봄을 주제로 기존에 익숙한 곡부터 창작곡까지 망라한 프로그래밍은 관객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무엇보다 상주작곡가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창작곡 개발과 발표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많은 연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개개인별 솔리스트로서 수준높은 연주활동을 하는 멤버들의 앙상블을 보다 밀도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2013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전통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 18(목) 18:00 ~ 20:00
-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김만석, 김성욱, 임준희

2013년도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 1차 공모에서 예심을 통과한 총 12편의 작품을 심의하여 최종 7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본심에서는 청중들과의 소통과 대중성을 위해 전통음악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다양한 음악과 공연양식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전통음악과 한국의 전통을 소재로, 민요, 굿, 세종대왕, 한지, 판소리 등의 한국적 소재를 다큐영화, 정제된 영상자료, 음악적 재구성, 창극, 뮤지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했으며, 일부 공연팀은 각 구성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했으나, 일부 작품은 기획의도와 스토리의 차용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완성도가 낮은 일부 작품도 엿보였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소재와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다양한 공연양식을 선보인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또한 새로운 기획과 프로그램으로 충실한 공연들을 보여 주었으나 기획단계에서 창작 작품 보다는 연출, 연주, 무대, 조명 등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공연의 기반이 되는 우수한 창작 작품이 많이 나오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특히 전통음악의 원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자료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품을 만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바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들에 평가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심의과정에서 느낀점은 청중과의 소통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보이며, 특히 한 프로그램을 스토리로 엮는다거나 영상과 결합한다거나 타이틀 매치 같은 형식으로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한다거나 하는 측면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인다. 젊은 단체들의 노력과 역량이 많이 향상되는 것이 보이나 창작 작품에 있어서 전문적인 공연물로서의 완성도 측면에서 더욱 부단한 반성과 연마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 세부 평가

1. (사)정가악회 <아리랑-삶의 노래>

강원도 평창아리리를 소재로 하여 수개월에 걸친 현장 탐사를 통한 영상 작업과 원형의 노래들을 통한 아리랑의 재해석을 보여준 충실한 공연이었고 전통 음악에 대한 진지한 접근 방식과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공연형태로 청중들과 소통하였다는 점에서 타 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공연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앞으로의 공연에서 원래의 멜로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보다 창작적인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욱 창의적인 공연 형태가 되리라 생각된다.

2. 그룹 타 <Good 판 Good 가락>

전통연희를 무대화하여 관객과 어울리고자 한 점이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하지만 좀더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협소하여 많은 관객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소규모 연극무대나 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많은 관객과 함께하였으면 한다.

3. 사계 <사계 콘서트 사이>

4계절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한명의 작곡가에 의해 전곡 창작 초연되고 거기에 맞는 구성, 스토리, 연출에 의해 진행된 점은 청중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음악적으로 여러 어법이 산재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졌고 사계만의 특유한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 아쉬웠지만 이러한 점을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한다면 다른 단체에 모델이 될 만한 공연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보여 진다.

4. 아시아금교류회 <제15회 정기연주회>

가야금이나 거문고와 같은 악기들의 역사를 아시아의 악기들과 비교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 기획이 돋보인 공연이었다. 연주자들의 개별적 기량이 뛰어났으며 다채로운 현악중심의 공연을 선보여 현악연주단체의 공연레퍼토리 확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 다만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전통음악의 다양한 위축과 다채로운 편성의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해외 음악과의 교류시 한명의 악기연주자만으로는 악기의 다양한 독주,병주,중주,합주의 음악세계를 알기 어려우므로, 해외악기의 다양한 음악스타일과 연주를 선보일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5. 유경화앙상블 이도 <콘서트 공감>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월드뮤직을 표방함. 한국적 장단과 선율감이 공연전체에 녹아있었으며, 정제된 영상과 조명, 무대연출이 작품의 세련미를 더했음. 특히 동서양악기의 조화가 뛰어났으며, 일반적인 경우 선법과 음향적 불균형으로 전통악기가 서양악기에 맞추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 단체의 경우 서양악기와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고, 실제 음악적으로도 음향적으로 조화를 잘 꾀했고, 연주자 전원이 한국적 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장단의 해석이 뛰어나 한국적 월드뮤직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6. 창작국악집단 젊은풍류 <국악, 향가를 노래하다>

향가를 바탕으로, 향가에 담긴 소재와 의미를 창작곡으로 만든 작품을 선보였다. 음악원형이 남아있지 않은 전통노래 향가에 각 작품의 주제에 맞게 현대적인 노래와 기악연주, 마임, 전통춤 등의 요소를 잘 활용해 공연의 다양성을 부가했다. 이러한 기획의도는 참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일부의 경우 연주자간의 하모니나 음향적인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춤의 경우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음악구성과 기획, 홍보가 좀 더 보완된다면 지역문화향유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7. 타니모션 <새굿 프로젝트>

한과 살을 풀어주는 굿이라는 공연 형태를 젊은 감각으로 기원을 통해 소원을 푸는 형식으로 바꾸고 굿 리듬을 좀 더 현대적인 공연 형태로 바꾼 참신한 기획이 돋보였으며 공연 프로그램, 진행, 연출 등에서 충실한 공연으로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앞으로 좀 더 진지한 전통적인 굿 음악의 리듬 개발과 전문적인 사회와 연주 개발을 통해 보완한다면 새로운 장르의 공연으로써 발전 가능성 있다고 보여진다.

전통분야책임심의위원 일동